

자율형 고교 기독교 사학 존재 의무



김철경 (대광고등학교교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이사장)

필자는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여 대광중, 대광고에서 기독교 전인교육을 받았으며,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여 공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부터 모교인 대광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 중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들어가는 말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저는 첫 번째가 교육의 주체는 정부이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평등 교육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은 사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될 수 없다. 교육의 주권은 학생과 학부모가 가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교육의 주체가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기독교 학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학이 불신을 받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에 계속 되는 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 왔다. 평준화 정책을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평가하는 부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970년대 이전과 같이 각 개별 고등학교들이 지녔던 전통과 특색은 이제 없어졌다. 이와 같은 평준화 교육의 약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적성, 꿈과 끼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일반(인문)고, 특성화고, 외국어고(외고), 자율형공립(자공고), 자율형사립(자사고) 등 여러 종류의 고등학교가 생겨났다. 그런데 교육부는 유독 외고와 자사고만 문제 삼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폐지시키겠다고 한다. 폐지의 가장 주된 이유가 입시위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지 알 수 없지만 대학 입시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일반고는 물론 심지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대학 입시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한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

현 정부는 핀란드식 평등교육과 경쟁이 없는 창의 교육, 사교육이 없는 교육, 투명한 입시와 공정한 취업기회 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교육개혁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급진적으로 선회시켜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부가 교육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정부는 교육 선택권을 교육 소비자, 수요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또는 교육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일면 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 주도의 교육은 획일적 사회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하물며 국가가 교육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평등교육은 어떤 것인가?

평등한 교육, 경쟁이 없는 교육은 과연 어떤 것인가? 먼저 평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평등은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배운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배울 수는 없다. 격차를 인정하고 눈높이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이것이 바로 평등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고교 교육 정상화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총론적인 생각에서만 같은 뿐 각론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인

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교 교육을 황폐화 시켰던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사람들이 지닌 능력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높이가 교육이며 올바른 교육 평등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능력 편차를 감안하여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다양해야 한다.

**격차를 인정하고
높이가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
이것이 바로 평등**

그 다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자사고이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동기 유발이 가능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월성 교육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학력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성격과 가정형편까지 비슷한 것은 아니므로 혹자들은 금수저끼리, 특권 자녀들끼리 어울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동급생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사회성이 좋아지는 모습이 더 많이 눈에 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육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자들은 더욱 노력해야 한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메달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 그러므로 경쟁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또한 교육의 과정에서 평가는 필수적이다. 평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경쟁이라고 주장하며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학생들 간의 경쟁을 막는 것은 결국 모두의 실력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기독교 자사고의 현실적인 고민

현재 서울형 자사고인 대광고등학교는 1947년 추양 한경직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 전인교육의 명문 사학이다. 대광고는 1970년대 중반까지 특색 있는 명문 사학이었다. 그러나 1974년 고교 평준화 이후 학생 선발권을 잃어버리고 특색 없는 기독교 학교로 운영되어 왔다. 결국 평준화 이후 기독교 학교의 종교 교육이 문제가 되었고, 급기야 2004년 한 학생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며 체포를 거부하고 법적인 투쟁까지 벌였다. 이에 대법원은 학생의 종교 선택권이 우선이므로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말라고 판결하였다.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종교 선택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교육의 자유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학교가 건학이념에 부합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허락해야 한다. 국가가 등록금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학은 학생 등록금만으로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 지원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종교적 갈등을 일

으키는 선교나 기독교 교육 대신에 공교육이나 제대로 수행하라고 기독교 사학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가르치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사회의 다양한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광고는 앞서 이야기한 2008년 재판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 과연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교육부는 민족사관 고등학교 등과 같은 형태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의 개편을 각 고등학교에 독려하기 시작했다. 학생 선발권을 각급학교장에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자사고 설립을 권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광고등학교도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자사고로 전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처음의 약속과 달리 지원학생의 상위 50% 성적 제한은 위법이라며 서울형 자사고를 누구나 지원하는 전형 체제로 바꾸었다. 즉, 자립형/전국형 자사고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합격을 좌우하지만,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 대광고와 같은 서울형 자사고는 학생들의 중학교 학업 성적과 전혀 관계가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형 자사고는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일부 상위권 학생들의 자사고 선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전형 체제를 바꾸고 시행령으로 고시했다. 우수학생들을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가 선점하도록 하면서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임의로 고등학교를 배정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이 자사고를 기피하도록 하여 자사고가 스스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학생 선발권마저 완전히 박탈하여 무조건 추첨으로 학생선발을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자사고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자율형 고등학교임에도 교육청이 과목별로 시수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자율적인 교과 편성권조차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자사고에서 기독교 교육을 위한 교과목 편성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대학 입시체제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학교는 존립하기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로운 변화 시도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다. 대한민국의 교육과 입시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어렵다. 또한 기독교사립학교의 교사들의 영적 각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부른 판단을 해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자. 현 정부가 사립학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 교육개혁도 가능할 것이다.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 사학이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몫은 현 정부의 교육 관련자들과 교사, 학생, 학부모이며 학교법인 등 모든 교육 당사자들에게 있다. 기독교 자사고의 경우, 교계의 적극적인 기독교학교 돕기도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개혁을 위해 기독교 사학이 건학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육체제를 개편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함께 고민해 보자. 